**“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.”**

**11/25 월**

**행 1:16-25 (17, 25)**
**16** “형제 여러분, 예수님을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.
**17** 유다는 우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역의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.
**18** (그런데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산 후, 거꾸로 떨어져서 배가 터지고 내장이 모두 쏟아져 나왔습니다.
**19** 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이 이 일을 알게 되어, 그 밭을 그들의 지역어로 아겔다마라고 했는데, 그 말은 ‘피밭’이라는 뜻입니다.)
**20** 이러므로 시편에는 ‘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.’ 또 ‘그의 감독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십시오.’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.
**21** 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드나드시던 동안에,
**22** 곧 요한이 침례를 주던 때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어 하늘로 올려지시던 날까지, 우리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의 하나가 우리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.”
**23** 그러자 그들이 두 사람을 추천하였는데,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는 별명도 가진 요셉이었으며, 또 한 사람은 맛디아였다.
**24** 그들이 기도하였다. “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, 이 두 사람 중에 주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을 밝히 보여 주시어,
**25** 이 사역과 사도 직분을 대신하게 하십시오. 유다는 이것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.”

**11/26 화**

**고후 4:1-7**
**1** 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,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.
**2** 오히려 우리는 숨겨진 부끄러운 일들을 버리고, 간교하게 행하지 않고,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물을 섞지 않으며, 진리를 나타내어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우리 자신을 추천합니다.
**3** 우리의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, 그것은 멸망하는 이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.
**4** 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,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**5** 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,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.
**6** 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.
**7** 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.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.

**딤후 4:5** 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고, 고난을 견디며, 복음 전파자의 일을 하고, 그대의 사역을 완수하십시오.

**11/27 수**

**고후 3:1-9 (6)**
**1** 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추천하기 시작해야겠습니까? 혹은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도 여러분에게 보내거나 여러분에게서 받을 추천 편지가 필요하겠습니까?
**2** 여러분이 바로 우리의 편지입니다. 우리 마음에 쓰였고, 모든 사람이 알고 있으며 읽고 있습니다.
**3** 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.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,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.
**4** 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해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다.
**5** 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같이 여겨,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.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.
**6** 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.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.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,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.
**7** 더구나 돌판에 문자로 새겨진 죽음에 속한 사역도 영광 안에서 시작되어,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 곧 없어져 가는 영광 때문에도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는데,
**8** 하물며 그 영의 사역은 더욱 영광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?
**9** 유죄판결을 내리는 사역에 영광이 있다면, 의의 사역에는 영광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.

**딤전 1:12** 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.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사람으로 여기시어 나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.

**11/28 목**

**행 20:18-27 (24)**
**18** 장로들이 오자,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였다. “내가 아시아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줄곧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지냈는지는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.
**19** 나는 모든 겸손과 많은 눈물로 노예로서 주님을 섬겼으며, 또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닥친 시련도 겪었습니다.
**20** 그리고 나는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대중 앞에서나 이 집 저 집에서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가르쳤으며,
**21** 또한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며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엄숙히 증언했습니다.
**22** 보십시오, 이제 나는 영 안에 매이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.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모르지만,
**23** 다만 내가 아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각 도시에서 나에게 엄숙히 일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.
**24** 그러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내가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,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엄숙히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.
**25** 보십시오, 내가 여러분 가운데 두루 다니며 그 왕국을 선포하였으나, 이제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.
**26** 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증언합니다.
**27** 왜냐하면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모든 의결을 여러분에게 선포하였기 때문입니다.

**행 21:19** 바울이 그들에게 문안하고,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을 통하여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이야기하니,

**11/29 금**

1. **고전 1:10** 형제님들,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. 여러분 모두가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, 같은 생각과 같은 의견으로 조율되도록 하십시오.
2. **엡 4:7-16 (11-12)**
**7** 그러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.
**8** 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. “그분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이들을 포로로 이끌어 가셨다가, 사람들에게 은사들로 주셨습니다.”
**9** (그런데 그분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?
**10** 내려오셨던 그분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십니다.)
**11** 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,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,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,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.
**12** 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,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.
**13** 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,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,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.
**14** 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으로,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밀려다니거나 파도에 요동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. 이 가르침은 사람들의 속임수이며, 오류의 체계에 빠지게 하는 간교한 술수입니다.
**15** 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,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.
**16** 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,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.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.
3. **11/30 토**
4. **엡 4:11-12**
**11** 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, 어떤 사람들은 신언자로,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,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 및 교사로 주셨습니다.
**12** 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,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.
5. **딤후 1:5-12**
**5** 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.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안에 있었으며, 또한 나는 그대 안에도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.
**6** 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대에게 일깨워 줍니다. 나의 안수를 통하여 그대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은사를 부채질하여 불타오르게 하십시오.
**7** 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겁내는 영이 아니라 능력의 영과 사랑의 영과 맑은 생각의 영이기 때문입니다.
**8** 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을 위하여 증언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, 또한 주님을 위하여 갇힌 사람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.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.
**9** 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름으로 부르신 것은,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, 그분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입니다.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,
**10** 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났습니다. 그분은 죽음을 무효화하시고 복음을 통하여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.
**11** 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전파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워졌습니다.
**12** 이런 이유로 나는 이런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나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구이신 줄을 알고 있으며, 내가 맡긴 것을 그분께서 그날까지 지키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.
6. **12/01 주일**
7. **딤후 4:1-4, 6-8, 18, 22**
**1** 겨울이 되기 전에 올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. 으불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들이 그대에게 문안합니다.
**2** 말씀을 선포하십시오.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준비하고 있으십시오. 매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써, 가책받게 하고 책망하고 권유하십시오.
**3** 왜냐하면 때가 이를 것인데, 그때에는 사람들이 건강한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, 오히려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서, 가려운 귀를 긁어 주는 선생들을 많이 두고,
**4** 그들의 귀가 진리에서 돌아서서 꾸며 낸 이야기로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
**6** 나는 이제 부어지고 있으며, 내가 떠날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.
**7** 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, 달려야 할 길을 다 달렸으며, 믿음을 지켰습니다.
**8** 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나에게 그것을 보상으로 주실 것인데, 나에게만 아니라 그분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.
**18** 주님께서 나를 온갖 악한 일에서 구출하시고, 그분의 하늘에 속한 왕국 안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.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. 아멘.
**22** 주님께서 그대의 영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.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.